

# V리그 여자부 '어·우·G' 1승 남았다

<여차피 우승은 GS칼텍스>



28일 열린 여자 프로배구 V리그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GS칼텍스 강소휘가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소휘·리츠·이소영 삼각편대 흥국생명 압도 프로배구 여자부 사상 최초 트레블 우승 눈앞

GS칼텍스가 프로배구 여자부 사상 최초의 트레블(챔피언결정전·컵대회 우승·정규리그 1위) 달성에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GS칼텍스는 28일 서울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흥국생명을 세트스코어 3-0(25-21, 25-20, 25-16)으로 완파했다.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승리한 GS칼텍스는 5전 3승제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1승만 남겨졌다.

앞서 열린 15차례의 챔피언결정전에서 1, 2차전 승리를 거둔 4개 팀은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프로배구 컵대회에서 우승하고,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GS칼텍스는 여자부 최초의 트레블 위업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디뎠다.

구단 첫 통합우승도 눈앞이다.

GS칼텍스는 2008-2009시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2007-2008시즌, 2013-2014시즌에는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했다. 그러나 아직 단일 시즌에 정규리그 1위·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동시에 달성한 적은 없다.

강소휘(18점), 메레타 리츠(17점), 이소영(16점)으로 구성된

GS칼텍스 삼각편대는 2차전에서도 상대를 압도했다.

GS칼텍스의 서브도 날카로웠고, 블로킹과 수비진의 집중력도 GS칼텍스가 흥국생명에 앞섰다.

GS칼텍스 1세트에서 날카로운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 리츠·이소영·강소휘의 화력으로 득점하며 격차를 벌렸다.

2세트 흐름도 비슷했다. GS칼텍스는 강소휘의 시간차 공격과 리츠의 블로킹 득점, 이소영의 오픈 공격으로 앞서 나갔다.

흥국생명은 안간힘을 쓰며 19-22로 추격했으나, 이소영의 오픈 공격은 득점으로 연결되고 김연경의 시간차 공격을 범실이 되면서 승부의 추가 GS칼텍스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흥국생명은 3세트 2-2에서 김채연의 오픈 공격으로 이날 경기 처음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GS칼텍스 이소영이 언거푸 오픈 공격을 성공해 4-3으로 전세를 뒤집고 10-6으로 달아났다.

신체적, 심적으로 지친 흥국생명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였다.

이날 흥국생명 날개 공격수들은 모두 부진했다. 김연경(11점)은 상대 집중 견제에 시달려 공격 성공률은 28.57%에 그쳤다. 연합뉴스

# 류현진, 3년 연속 MLB 개막전 선발

###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초 기록 4월 2일 뉴욕 양키스전 출격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4·사진)이 한국 선수 최초로 3년 연속 개막전 마운드에 선다.

찰리 몬토요 감독은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디디트 TD볼파크에서 열린 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시범경기를 마친 뒤 화상 인터뷰를 통해 다음 달 2일 미국 뉴욕주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 정규시즌 개막전 선발로 류현진을 예고했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던 2019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토론토로 이적한 지난해에는 탬파베이 레이스와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3실점으로 다소 부진했다.

MLB 개막전에 3년 연속 선발 등판하는 한국 선수는 류현진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박찬호(2001년, 2002년)가 2년 연속 개막전에 선발 등판한 적이 있었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양키스를 상

대로 두 차례 선발 등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8일 미국 뉴욕주 세일런필드에서 열린 양키스와 시즌 첫 경기에서 5이닝 동안 3개의 홈런을 포함해 5피안타 5실점(5자책점)으로 부진했다.

두 번째 경기였던 9월 25일 홈경기에선 7이닝 5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이날 시범경기 등판을 마친 뒤 개막전 선발 등판에 관해 "개막전은 어디에서 하든 항상 기분 좋다. 흥분된다"며 "선수라면 다들 비슷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진의 개막전 선발 맞대결 상대는 MLB 최고 투수로 꼽히는 게릿 폴이다.

폴은 휴스턴 에스트로스에서 뛰던 2019년 20승 5패 평균자책점 2.50을 기록한 뒤 자유계약선수(FA)로 양키스에 입단한 최고의 투수다. 연합뉴스

# 임성재, WGC 매치플레이 16강 좌절

### 1-3번 홀 연달아 패... 조 4위

임성재(23)와 김시우(26)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델 테크놀로지스 매치플레이(총상금 1050만 달러)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임성재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오스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조별리그 16조 3차전에서 빅토르 페레스(프랑스)에게 2홀 차로 졌다.

조별리그 세 경기를 1승 2패로 마친 임성재는 조 최하위인 4위에 머물렀다. 경기 전까지 16조 선수 4명이 모두 1승 1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임성재가 이날 이겼더라면 조 1위에게

주는 16강 티켓을 바라볼 수 있었으나 경기 시작 후 1~3번 홀에서 연달아 패한 것을 극복하지 못했다.

임성재는 12, 13번 홀에서 연달아 이겨 1홀 차로 추격했으나 다시 16번 홀(파5)을 내줘 2홀 차로 벌어졌다. 5조의 김시우도 양투안 로즈너(프랑스)와 최종전에서 3홀 차로 패해 1무 2패, 조 4위로 탈락했다.

김시우는 1, 2번 홀을 따내며 기분 좋게 출발했으나 이후 4번과 8번 홀을 내줘 전반을 무승부로 마쳤다.

후반 들어 김시우는 11, 12번 홀을 내리 빼앗기며 역전을 허용했고 17번 홀(파3)마저 내주면서 패배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 장재영, 151km 광속구로 프로 첫 세이브

### 요키시·브룩스·켈리 '개막전 선발 후보들' 컨디션 점진 완화, 롯데 2-0으로 꺾고 시범경기 5승 1패... 1위 올라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괴물 신인' 장재영(사진)이 시범경기에서 첫 세이브를 수확했다.

장재영은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3-1로 앞선 9회말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삼진 2개를 속아내며 1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지켰다.

신인 계약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9억원을 받고 키움 유니폼을 입은 우완투수 장재영은 첫 타자 이우성에게 슬라이더를 던져 첫 삼진

을 낚았다. 이정훈을 불넷으로 내보낸 뒤 나주환에게 시속 135km짜리 커브를 던져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장재영은 이날 경기에서 최고 시속 151km에 이르는 빠른 볼로 KIA 타자들의 방향미를 뒤흔었다.

정규리그 개막전 선발 등판이 유력한 에릭 요키시(키움)와 에런 브룩스(KIA)는 마지막 실전에서 컨디션

을 점진했다. 요키시는 5이닝 동안 안타 1개만 내주는 빼어난 투구로 1실점 했다.

브룩스 역시 삼진 5개를 뽑아내고 6이닝을 2점으로 막았다.

서울 잠실구장에서는 LG 트윈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6-5로 꺾었다.

개막전에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이는 LG 우완 투수 케이시 켈리는 3%이닝 동안 홈런 2방을 맞는 등 안타 6개를 허용하고 5실점 해 불안감을 지우지 못했다.

삼성 선발 벤 라이블리도 4이닝 동안 안타 7개와 불넷 3개를 묶어 5실점 하는 등 기대를 밑돌았다.

한화 이글스는 대전 홈경기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2-0으로 꺾고 시범경기 5승 1패로 1위에 올랐다.

한화 우타 거포 노시환은 0의 균형을 이어지던 6회말 2사 2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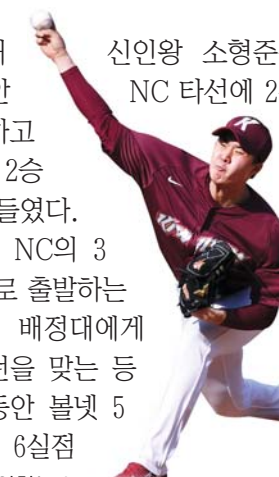
박진형의 공을 벼락같이 끌어당겨 왼쪽 담을 총알같이 넘어가는 투런포를 터뜨렸다.

롯데 선발 엔데르손 프랑코는 삼진 6개를 곁들여 5이닝을 6피안타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kt wiz는 수원 안방에서 지난해 통합 우승팀 NC 다이노스를 14-3으로 대파했다.

지난해 신인왕 소형준은 5이닝 동안 NC 타선에 2점만 허용하고 시범경기 2승째를 거뒀었다.

올 시즌 NC의 3선발 투수로 출발하는 송명기는 배재대에게 석 점 홈런을 맞는 등 3%이닝 동안 불넷 5개를 주고 6실점 했다. 연합뉴스



**수축상**  
CONGRATULATIONS

**2020 올해를 빛낸 사회공헌 대상**



**황경남**  
(주)나눔 대표이사

(사)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수여한 2020 올해를 빛낸 사회공헌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수축상**  
CONGRATULATIONS

**2020 올해를 빛낸 사회공헌 대상**



**황경남**  
(주)나눔 대표이사

(사)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수여한 2020 올해를 빛낸 사회공헌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나눔 임직원 일동**

**취축득**  
CONGRATULATIONS

**동덕대학교 경영학박사**



**홍찬표**  
(세무법인 위(WE) 대표 세무사)

동덕대학교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賢二會 회원일동**

**취축임**  
CONGRATULATIONS

**(사)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감사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안치호**      **안재홍**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순흥안씨감찰공파가시종친회**  
회장 안두명 외 친족일동